

소
마
나
의
꿈

망
인
스
꿈

2026.05





5월

가 정 의 달

어린이주일
5월 3일
유아 세례

아버이주일
5월 10일
온 가족 예배

성령강림주일
5월 24일
아동 세례



202605

소망
마음
나눔
집

© 2026 소망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목상집(소망말씀나눔)은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CONTENTS

May | 2026



FAITH

하늘을 여는 기도
빛이 승리하셨나니 4

깊어지는 영성
부활의 증인 | 김경진 6

목상에 붙임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 유진 피터슨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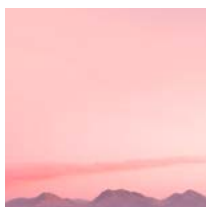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준비·이해·적용·기도 14

말씀 개관
이사야 16

5월 본문
이사야·말라기·다니엘 20

1주(5/4) | 2주(5/11) | 3주(5/18) | 4주(5/25)



COMMUNICATION

땅끝에서 온 편지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 이견미·한민 66

소망사랑방
한사람 | 김신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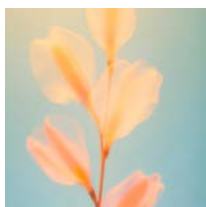
숨겨진 보화, 선교사들 이야기
'최초'로 유명한 선교사
존 헤론 | 정의진 140

공간공감
정동제일교회 | 홍성찬 176

이달의 기도
부활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180

소망마당
예수님을 닮아 가는 소망아이 | 영유아유치팀 182

곁에 있는 은혜
그 향기가 코끝에 닿을 때 | 김수진 186



믿음의 사람들 오늘을 살다
모세: 광야 같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부모 | 형예찬 188

말과 말 사이
꿈은 밤보다도 깊어 | 소망말씀나눔 편집팀 192

빛이 머문 자리
서촌, 승천 | 최성수 196

예배자의 길
5월, 우리의 고백 | 황주은·이수아·이영주 198

말씀의 흔적
성경의 장과 절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 최형근 202

신앙의 나침반
예정론, 나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 김선권 206

소망뉴스
5월 소식 210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님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드러내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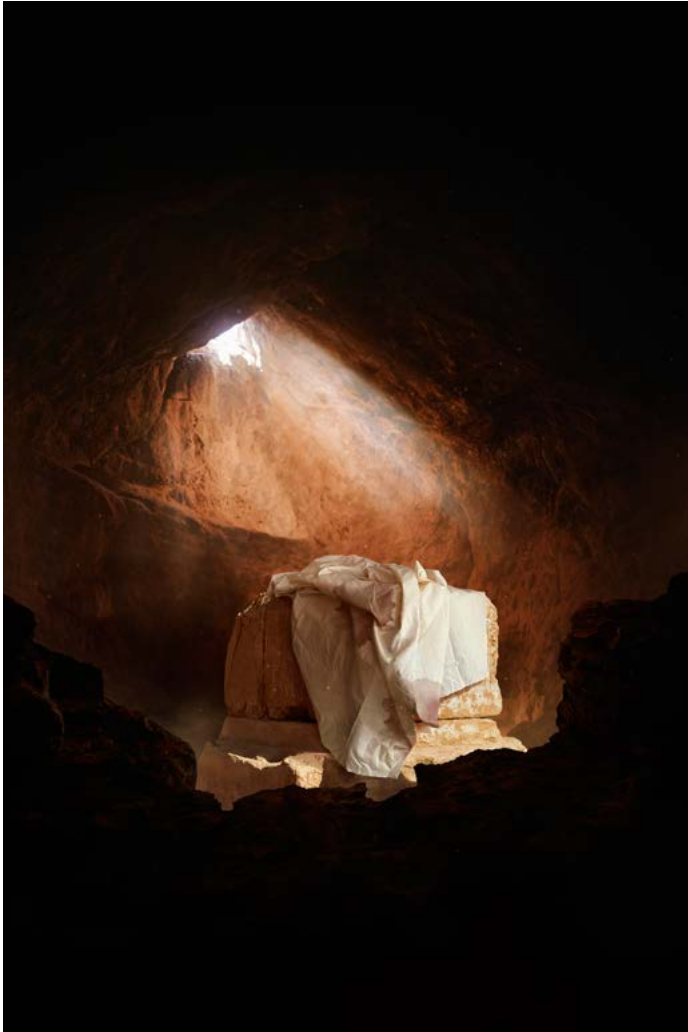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어지는 영성

부활의 증인

글 김경진



우리는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마주했던 고민과 바울의 권면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벌과 도덕적 타락, 무질서한 예배의 문제, 그리고 은사받은 이들의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이 뒤엉킨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혼란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인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문제를 하나씩 짚어 나가는 끝에 부활의 주제를 꺼내 듭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 그저 하나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곰곰이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마무리하며 결론에서 한 교훈을 남기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너희에게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 15:58)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러므로’ 힘써야 하는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교훈은 먼저 이러한 물음을 던집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과연 너희는 죽었는가?”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서로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와 사회가 삽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평을 구하는 수고가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활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몸은 어차피 썩을 것이니 마음대로 즐기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 몸은 부활의 날에 변화될 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전 15:52)





우리의 몸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주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 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자신의 몸을 정욕의 도구로 내던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씁니다. 음란을 멀리하고 중독에서 벗어나며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손의 못 자국과 허리의 창 자국을 드러내며 육신의 자국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부활하신 몸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육신에는 어떤 자국이 남아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고전 15:58b)

부활 신앙은 지금의 현실을 긍정하며 오늘의 수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이 세상에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 힘쓴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나의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글 유진 피터슨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였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을 쓰고 노래한 이들은 결코 인생의 어두운 면에 생소한 이들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포로기의 쓰라린 기억이 뼈속 깊이 사무쳐 있었으며 압제의 설움을 붓집처럼 지고 다녔다. 마음의 사막과 눈물의 밤도 맛보다 아는 그들이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는다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터득한 가장 흥미롭고도 놀랄 만한 사실은 웃음이 눈물을 없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슬픔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고통과 시련이 여전히 닥쳐와도 구속받은 자의 기쁨을 앗아 갈 수는 없다.

기쁨을 얻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실속 없는 전략은 상처를 무시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말단 신경을 무디게 함으로써 고통을 없애거나 위험 요소를 배격함으로써 불안정한 것들

을 근절시키거나 인간관계를 멀리함으로써 실망의 싹을 없애는 식으로 말이다. 대신 여행이나 오락이 주는 기쁨을 사서 그와 같은 삶의 지루함을 경감시킨다. 그러나 시편 126편에서 그러한 기쁨의 기미는 비치지 않는다.

밝은 웃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한가운데를 지날 때, 그런 삶을 인식할 때 주어진다.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시편 126편 1절)

기쁨의 향유는 지루함을 탈피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흠뻑 빠져드는 데 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과거와 미래 어느 쪽이든 많은 시련이 존재한다. 다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내는 법을 아시고 부활의 역사 가운데 새 생명의 웃음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일궈 내는 것이 아니다. 웃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태의 즐거움에서 연유하는 것이지, 불안정한 방어 체계로 인한 흥분의 징후인 킬킬거림 정도를 일컫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노정에서 전개되는 기쁨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궁지에서 오는 영적 충만이다. 하나님의 길이야말로 믿을 만한 길이며, 그분의 약속이야말로 확실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 유진 피터슨 『한길 가는 순례자』 (IVP, 2025) 128~129쪽.